

제427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8일(금)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실시한 조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여러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미 관세협상을 비롯한 글로벌 외교 현안에 대응하고 국익과 민생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차대한 외교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홍기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예, 홍기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 위원입니다.

엄중한 국제 정세와 또 대미 관세 통상 문제 등 여러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서 오늘 외

교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급한 현안 과제가 있는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미 통상 또 엄중한 국제 정세 그리고 APEC 정상회담 준비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단절된 남북관계의 개선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난 3년간 전 정부의 대결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이 없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통일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당장의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빨리 장관을 임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정동영 후보자는 과거 통일부장관을 역임하셨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동영 후보자만큼 통일부에 필요한 책임자가 있을지,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정동영 장관후보자는 특히 야당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저도 같은 취지로 몇 마디만 보태려고 합니다.

두 번째 통일부장관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경륜이나 그간에 살아온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통일부장관으로 나선 것은 스스로가 시대적 역할을 다하고자 나선 것인데 우리 동료 의원으로서 그분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여야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홍기원 위원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조직이 굉장히 많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빨리 수습해야 될 그 책임에 있어서 이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있어도 놀랄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조직을 추스르고 기능을 다시 되찾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장관만큼이나 통일부 수장을 저희가 힘을 실어 인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만약 오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빠른 시간 내에 힘을 실어서, 우리가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강하게 우리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책임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은 지난 국무위원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등을 반영하여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의 체계 및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 건 김기웅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안철수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인요한 조정식 차지호 최혁진 한정애 홍기원

○청가 위원(2인)

김기현 유용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김사우